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방역 앞장 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 80만원 지급

전북도, 17일부터 개소당 80만원 신청접수

2020년 5월 1일부터 행정명령 준수 6만여곳 대상

전북도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최일선에서 방역에 앞장선 행정명령 이행시설 6만여 개소의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규모는 1개소당 8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며, 총 지급액은 480억 원에 이른다.

이번 결정은 지난 2년 동안(2020. 5. 1 ~ 2022. 3. 31)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에 따라 손실을 보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고초를 어루만져야 하는 심정으로, 올해 예산에 480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전액 도비로 마련했다. 전북도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시설주가 해

당 주소지 시·군 및 읍면동에 방문해 신청서 작성과 기본 필수 서류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행정청의 인·허가증, 통장 사본을 접수하면 된다.

이번에 지급되는 행정명령 시설에는 행정청의 인·허가증이 없는 자유업종의 경우에도 지급되도록 했는데, 이런 경우는 시·군청에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신청하면 된다.

다소 번거로울 수 있지만 사실 확인을 위해서 담당 공무원의 현장실사를 위한 제출과 기타 추가 제출서류가 필요하므로, 신청 전에 유선 확인 및 해당 시·군청의 누리집 등을 참조해달

라고 당부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해 180만명의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이어, 방역의 최일선에서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일상회복을 위해서 묵묵히 방역당국에 협조한 소상공인들의 수고에 감사하는 마음이다"고 말했다.

이어 송 지사는 "행정명령 이행시설에 대한 80만 원 재난지원금은 또 한번의 민생경제 살리기와 방역을 책임진다는 취지를 도민들과 소상공인 경영자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힘겨운 올 한해는 행정명령 시설 재난지원금 지원을 필두로 경제체질 개선, 산업 생태계 구축, 자존의식 고취를 반드시 추진해 나가길 도민 모두가 함께 응원한다"고 언급했다. /유호상 기자



김승수 전주시장은 6일 시청 회의실에서 2022년 시장운영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전주다운 도전... 전주다운 혁신...

김승수 전주시장, 올 한해 시장운영방향 발표
경제·생태·문화·복지 등 4대 분야 18대 전략 제시

전주시가 바이오헬스케어와 수소 등 미래 신성장산업과 지역 기업들의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전주형 공공배달앱인 '전주맛배달'을 도입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등 탄탄한 경제 기반 다지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새해 계획을 밝혔다. (권민기 16면)

이와 동시에 시는 종합경기장을 중심으로 덕진권역을 재생하는 5대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와 글로벌 관광도시, 문화예술도시, 책의 도시로 한 단계 더 발돋움하기 위한 청사진도 내놓았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6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2022년 시장운영방향을 설명하는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담대한 미래를 향한 전주다운 도전과 혁신'이라는 비전과 경제·생태·문화·복지 등 4대 분야 18대 전략을 제시했다. 분야별 전략을 보면 먼저 경제 분야의 경우 코로나 19 방역 강화를 통해 빠른 일상회복에 나서는 것을 기초로 ▲신성장 산업 육성으로 미래산업 고도화 ▲디지털경제 기반 생태계 조성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확립 등의 전략이 언급됐다.

시는 기업과 대학, 병원과 함께 바이오헬스케어 기반 조성에 나서고 수소·탄소·드론·금융 등 4대 신성장산업의 질적 도약을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 여기에 전주 신산업육

복합 지식산업센터와 전주혁신창업 허브, 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 산학융합플라자, 전북중소기업연수원 등으로 이어지는 5대 성장거점을 마련해 경제 기반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와 VR·AR 제작거점센터 등을 통해 J-디지털 창의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전주형 상생일자리와 중소기업 종사자 퇴직연금을 추진해 안정적인 일자리 생태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중개수수료 0%의 전주형 공공배달앱인 '전주맛배달' 도입과 전주사랑상품권(메지카드) 확대 발행, 도매시장 현대화 등 소상공인 지원책도 내놓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2030 탄소중립 선도적 추진 ▲전안그루정원도시 조성 등 생태도시로의 대전환과 광역도시 성장거점 구축에 공을 들인다.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융복합 사업부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쾌적한 녹색 주택 조성 등에 이르기까지 에너지지립도시 구현에 나서는 한편, 도심 비합법길수와 정원도시 10대 거점을 조성하는 등 천만그루정원도시로 나아가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또 간선급행버스체계(BRT)의 도입과 전주역사 전면 개선사업, 친환경 수소버스 보급 등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생태 교통수단을 늘리는 데에도 힘쓴다.

특히 종합경기장을 중심으로 한 덕진권역에서는 6300억원 규모의 메타버스 중심의 첨단 디지털 문화콘텐츠 경제형 기반 도시재생 사업을 포함해 정원의 숲 조성, 한국문화원형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 사립미술관 건립, 로파크 건립 등 5대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주다운을 기반으로 글로벌 문화여행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문화 분야의 경우 ▲책의도시 조성 ▲글로벌 관광도시 도약 등에 주력한다.

그간 도서관 공간 혁신에 힘쓴 경험을 바탕으로 이종호수 공공도서관, 검이불루(연화정) 도서관 등 특화도서관을 추가로 조성하고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과 전주책사랑 포인트 책꽂이 등을 통해 책사랑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옥마을 무가선 관광트램과 외국인 특화관광허브, 한옥마을 국제관광 안내소 등 글로벌 관광도시 기반을 확대하고, 전라강영 전체 복원 및 전주부성 일부 복원, 후백제 역사문화 재조명 등 역사문화도시 전주의 명맥을 잇는 데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융합형 통합돌봄 선도사업 등 단 한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맞춤형 복지 구현 ▲아호플랜 통합지원센터 운영 등 아호플랜 확대 추진 등 사람 중심 전략들도 추진한다.

시는 이날 제시한 주요 사업들을 시의화와 전문가, 시민들 대상 의견 수렴과 자문 등을 거쳐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올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참여기업 모집

11일 유튜브 온라인 설명회

전북도, 21일까지 신청접수

지정시 재정지원 자격 부여

전북도가 2022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제1차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사회적경제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모 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신규·재심사),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인프라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등 총 6개 사업 부문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조직 형태(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를 갖추고,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목적으로 하며, 영업활동 수행하고 있어야 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 창출,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사업 참여 자격이 부여되고, 컨설팅·경영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재정지원사업 공모 중 일자리 창출 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이 대상이며,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저

임금(191만원/인당)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개시일로부터 1년간 지원되며, 기업당 최대 50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이 대상이며, 기업의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추 수 있도록 브랜드·기술개발 및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증사회적기업은 연간 최대 1억 원까지, 예비사회적기업·마을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은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인프라 지원사업은 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설비 교체·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예비마을기업 제외), 자활기업이며, 기업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최근 5년 이내 500만원 이상의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을 지원받았던 적이 있는 기업은 참여가 제한된다.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경영혁신을 위해 경영·회계·마케팅 등 전문분야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 및 인증사회적기업이며, 기업당 1~2명의 인건비 일부(20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인증사회적기업 대상으로 사업주 부담분 4대 사회보험료 일부(최대 19만2,000원/인당)를 최대 4년간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50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도는 이번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유튜브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전북도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단체는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is.or.kr) 온라인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인프라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사회적경제기업은 소재지 관할 시·군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서류검토와 현장 실사를 거친 후, 전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3월 말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선정 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며, 전문인력 및 사회보험료 지원은 시·군 선정 후 통보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정성가득, 마음을 담은 설맞이 선물기획전



단풍미인 소핑몰

근하신년 설명절 상품관

행사기간: 2022. 1. 3. ~ 1. 24.

- ◆ 설 이벤트
 - 명절상품관 : 5~50% 할인상품 구성, 대량상품 할인(10+1, 15+1등)
 - 10만원 이상 구매회원 대상(22.1.3.~1.21.) 매주 10명 추첨 2만 포인트 지급
 - 단풍미인소핑몰 회원가입 하신 분들께 한합니다.
 - 신규 회원가입고객 3천 포인트 지급
- ◆ 설문 이벤트
 - 기간 중 구매고객 대상 만족도 설문(설문조사 URL 문자전송)
 - 설문응답고객님께 소정의 기념품 증정


 063-532-4345
063-535-4345

신년상품 마감일 : 22. 1. 17.(월) 오전 11시30분 결제완료전까지
 일반상품 마감일 : 22. 1. 20.(목) 오전 11시30분 결제완료전까지
 • 택배마감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택배물량 증가와 주문폭주로 인해 택배지연과 조기품절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